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 FoMo

Forced Mobilization

2022년 7월호

Vol.2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 FoMo

Forced Mobilization

## 이슈

- 03 조세이탄광 희생자, 역사관에 잠들다
- 04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수호에  
앞장선 변호인들

## 소장 유물 소개

- 06 고려독립청년당

## 재단 소식

- 08 부산·제주로 추도순례 떠나다

## 역사관 소식

- 10 일제 강제동원 특별전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 탐방기

- 12 카페가 된 일제강점기 건물

## 도서 소개

- 14 그림으로 외치는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못다 핀 꽃』

## 역사관 방문기

- 16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곳,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블로거 seeall2004 님
- 17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블로거 신난다 님

## 웹툰 공모전 수상작

- 18 일주일

## 애독자란

- 21 FOMO 찾기

## 역사관 사용설명서

- 22 인문학 특강
- 23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다 「수국」 편 (꽃말: 진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우리의 진심을 수국을 든 포모로 표현했습니다.

**알려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2년 7월 15일 통권 제26호 |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반선영, 장민성, 추경아, 오다슬 | **디자인** 성준문화 |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조세이탄광 희생자, 역사관에 잠들다



01



02



03

01. 기억의 터 전경 02.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패  
03. 조세이탄광 이미지 (출처: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0주년 희생자 추도집회 자료집)

지난 4월 역사관 5층 위패관 ‘기억의 터’에 조세이(張生)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135 명의 위패를 추가로 안치했다. 조세이탄광은 아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해저탄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1,258명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2월 3일 작업자 180 여명이 사망하는 수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조선인은 무려 135명으로, 전체사망자의 75%에 달한다. ‘장생(張生)’이란 탄광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희생자들은 노역에만 시달리다 수몰사고로 단명(短命)했다.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희생자들은 여전히 차디찬 이역의 바다에 있다.

글 | 역사관 오다슬

#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수호에 앞장선 변호인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8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문제가 되어온 소멸시효와 재판청구권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 지난 6월 8일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과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잇따라 피해자 승소의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무역보복 등 한일갈등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그 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강제동원 사건 소멸시효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법에 소멸시효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혹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시절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지만 기산점과 관련하여 볼 때, 과연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기산점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판결시인지, 아니면 확정 판결시인지,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상의 다툼이 종료된 시기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제동원 유족들과 국민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으로부터 소외되어 어느 정부로부터도 정당하게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양국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정치적으로 미봉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한일 양국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일치된 판결을 했다. 따라서 양국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1965년 당시 미루어 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문제를 지금이라도 해결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한일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지금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한일 양국 사법부가 모두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정신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 앞으로 법조계에서 일제 강제동원 및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일 변호사회는 201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가 법적으로 구제되어 한일 간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이러한 공동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글·진행 | 역사관 추경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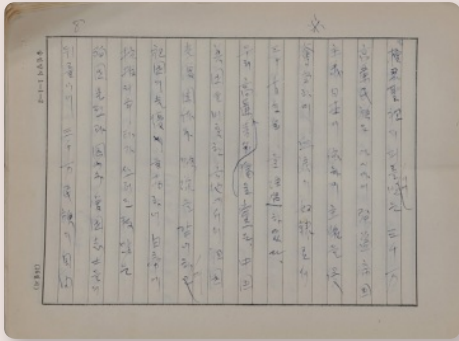
**최봉태** 변호사

## 일제 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소송 주요 일지

1965년 6월 22일	<b>정부, 일본정부와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b>
1997년 12월 24일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01년 3월 27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원고패소 판결
2002년 11월 19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항소기각 판결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2005년 2월 28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8월 26일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운택 할아버지 등 패소 판결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일본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2015년 5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명 일본기업 16곳 상대로 최대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초 원고 86명, 피고 17곳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일부 취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 승소 판결 확정.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2021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일본 기업들에 공시 송달 결정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소송대리인 선임한 점 고려해 공시송달 취소 결정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1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 지정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각하’ 판결
2022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고려독립청년당

이번 호에서는 일제강제동원에 항거한 조선인 '고려독립청년당'과 그 관련 유물을 소개한다. 고려독립청년당은 인도네시아 자바에 동원된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항일투쟁을 위해 조직한 비밀결사단체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항일세력과 연대한 투쟁 전개를 포함한 구체적인 당총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1945년 '암바라와 항일투쟁'과 '스미레호 사건'으로 그 실체가 발각되며, 일본 군법회의에 송치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고려독립청년당결당경위

### 고려독립청년당, 그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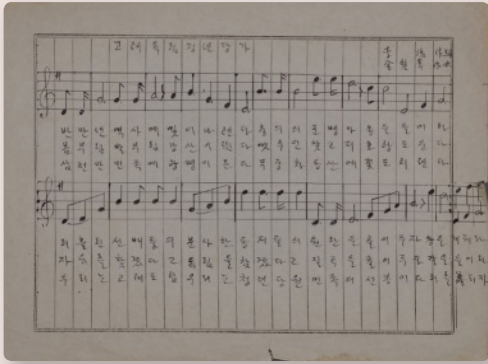
고려독립청년당의 결당 배경에 관해 서술한 문서로, 1944년 12월 29일 낭독된 「고려독립청년당 결당 선언」과 이에 참여한 총령 이활(이억관)과 김현채·임헌근·이상문·손양섭·조규홍·문학선·백문기·박창원·오은석 10인의 혈맹단원 성명이 기록되었다.



삼의사 위령제 사진

\* 암바라와 항일투쟁: 암바라와(Ambarawa)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위치한 도시로,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군사시설과 위안소 등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훈련받던 고려독립청년당원 손양섭·노병한·민영학은 말레이 전속 명령을 계기로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자바지역 최초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스미레호 사건: 말레이 전속을 명받은 당원 일부는 연합군 포로들과 연합해 해상에서 스미레호(すみれ丸)를 탈취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작전이 사전에 발각되고, 주요 단원들은 군법회의를 통해 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고초를 겪게 된다.



고려독립청년당가 악보

## 이역에서 울려퍼진 독립 염원

고려독립청년당가는 당원 김현재가 작곡, 총령 이할이 작사했다. 마단조의 총 3절로 구성돼 있다.

(1절) 반만년 역사에 빛이 나려다 총의의 군병아 총을 들어라  
 피흘린 선배들의 분사한 동지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창을 겨누라  
 (2절) 몸부림 발부림 강산이 뒰다 옛주인 찾고저 호랑도 운다  
 자유를 찾겠다고 독립을 찾겠다고 질곡을 풀어주자 칼을 들어라  
 (3절) 삼천만 민족에 광명이 온다 무궁화 동산에 꽃도 피려다  
 우리는 고려독립 우리는 청년당원 민족의 선봉이다 피를 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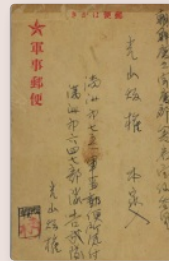
## 고려독립청년당원 안승갑

안승갑은 일제강점기 야학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치던 중 그 사실이 적발돼 인도네시아 포로수용소 감시원이 됐다. 포로수용소 제1분 소장은 안승갑의 부인에게 군사우편을 보냈는데, 이는 조선인에게 강제동원의 실상을 숨기고 강제동원지를 미화하기 위한 홍보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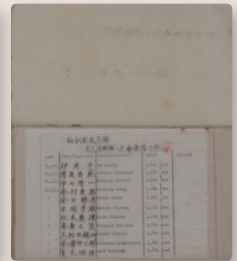
안승갑은 현지에서 고려독립청년당의 당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광복 이후에는 재자바 조선인민회 반동지부의 지부장이 되어 일본군이 저축을 강제한 사실을 담은 '사금회수증명서'와 고려독립청년당의 활동을 기록한 「활보

(活報)」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발간·소장했다. 역사관의 고려독립청년당 관련 유물도 대부분 안승갑의 유족이 기증한 것이다.

안승갑은 1947년 2월 귀국한 이래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려독립청년당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동지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사우편



사금회수증명서

자료출처: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자료집(2008) - 남방기행(강제동원구속수기집)』, 219-273p.

글 | 역사관 오다솔



## 부산·제주로 추도순례 떠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유족들과 함께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과 제주로 추도순례를 떠났다. 이번 추도순례는 일제의 가혹한 강제동원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다. 재단에서는 매년 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추도순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문의: 02) 721-1810)



\*본 추도순례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追悼  
巡禮



유족들이 역사관 '기억의 타'에서 추도식에 참여하고 있다.



## 부산·제주 추도순례 일정

1일차

서울 → 제주 → 유족간담회

2일차

알뜨르 비행장 → 모슬봉 군사시설 →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 성산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 제주 항일기념관 →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3일차

제주 → 부산 → 매죽지 마을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위패관, 추모탑)



역사관 추모탑에서 현화하고 있는 유족.

일제 강제동원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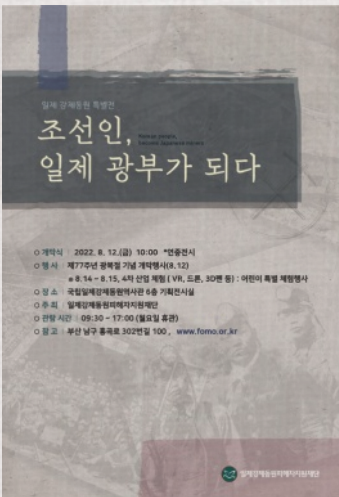
##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희생자 추모 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비판 결의문 -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는 8월 12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 광산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평범한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제동원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조선인 노무동원자의 삶을 재구성하여 전달한다. 전시 개막일에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전시 개막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퍼포먼스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떠나면 강제 동원지로 떠나야 했다. 한사람이 여러 차례 동원되기도 하고 광부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광부로 동원되기도 했다. 아버지나 어린 형제 등 가족을 대신하여 동원되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성년기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도 있다. 누군가의 부모, 자녀, 손자녀였던 조선인들은 목적지도 모른채 죄인처럼 끌려갔고, 평범한 삶을 빼앗긴 채 일제의 이름 없는 노무자로 전락하였다.

바로 그들의 생생한 기록인 강제동원 생존자의 증언이 '과거의 슬픈 기억'에서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유물 등의 자료는 희미해져가는 '과거 기억의 현실화 및 구체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은 “국제평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글 | 역사관 김민균

부산 초량을 걷다

## 카페가 된 일제강점기 건물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산역 인근의 초량이란 지명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백종원의 인기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만두 전문점 신발원과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원없이 맛보았던 군만두 가게 장성향이 있는 부산 상해거리(부산 차이나타운)\*, 부산의 대표 음식인 밀면으로 유명한 초량밀면,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본전돼지국밥 등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많은 맛집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맛집들뿐만 아니라 초량에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거나, 상업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량은 일찍이 조선 시대부터 왜관\*\*이 위치하던 곳으로 근대 개항 이후 이곳에 일본 전관 거류지가 들어섰다. 일제강점기에는 부산 부청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부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초량에는 일제강점기 건물이 많이 남아 있게 됐다.

인기가수 아이유의 MV촬영장소인 '문화공감 수정'은 1943년 지어진 2층 규모의 주택으로, 일제강점기 유력상인이었던 다마다 미노루가 연회나 회합의 장소로 지은 건물이다. 해방 후 미군정청 장교 기숙사로 사용되다 개인에 불하되어 정란각이라는 요리집으로 사용

문화공감  
수정

(출처: 론리플래닛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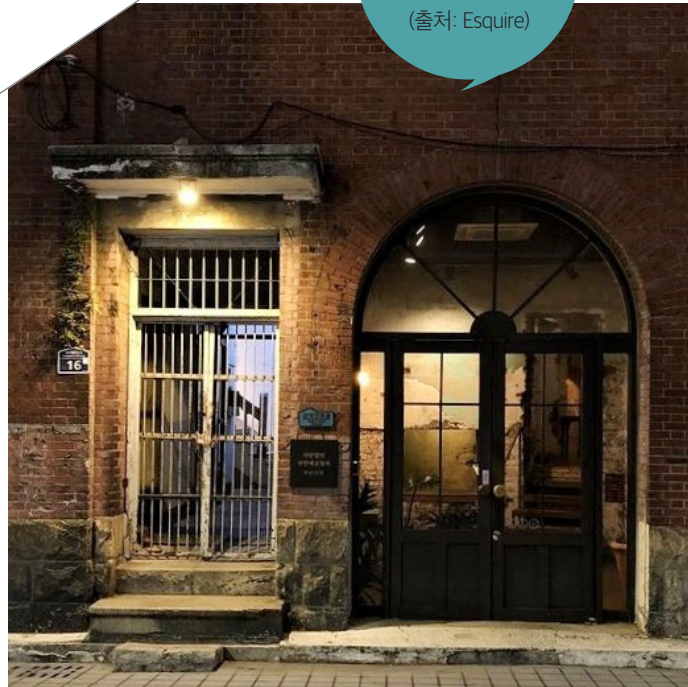


됐다. 2010년에는 문화재청이 매입, 2012년부터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 330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량1941’은 1941년 지어진 일본식 가옥으로, 지금은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우유카페’라는 색다른 별칭으로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량의 ‘브라운핸즈 백제’는 1922년 ‘백제병원\*\*\*’으로 완공된 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근대 건축물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47호로,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이곳은 부산 최초의 근현대식 개인종합병원인 ‘백제병원’이 있던 곳으로, 청요리집, 일본 장교의 숙소, 중화민국임시대사관, 예식장까지 많은 곡절을 겪다 지금은 카페와 출판사 창비의 부산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기 주택사와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기도 한 이 건물들은 SNS상의 유명한 ‘핫플’이기도 하다. 하지만 카페에 앉아 ‘감성샷’을 찍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는 나른함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개운치 않다. 마음 한 쪽에 자리 한 당시의 설움이 떠오르기 때문은 아닐까.

글 | 역사관 김민균



\*부산 차이나타운은 1884년 청의 조계지 청관이 세워 지면서부터 시작된 곳으로, 1993년 부산광역시가 중국 상하이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을 기념으로 정식명칭을 ‘부산 상해거리’로 바꾸게 되었다.

\*\*초량왜관은 조선 전기 부산포왜관, 임진왜란 직후 설치된 절영도왜관, 선조 때 조성된 두모포왜관에 이은 4번째 왜관이다. 조선 후기 왜관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200여년간 존속하며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이 진행된 곳으로, 물자 뿐만아니라 양국의 지식인과 상류층, 일반인의 교류도 함께 진행되었다.

-향토문화전자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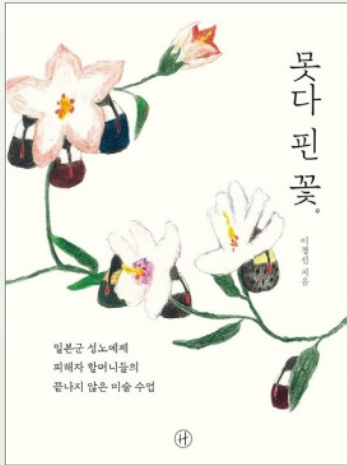
\*\*\*설립자인 외과의사 최용해가 건축과정에서 무리하게 빛을 끌어다 쓴데다 행려병자 시신으로 인체표본을 제작해 본관하다 적발되면서 병원문을 닫고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도시괴담같은 사연이 전해진다. 이후 중국인이 인수, 청요리집 봉래각으로 개조했다. 객실이 120개인 봉래각은 부산의 명물로 이름을 날렸으나, 중일전쟁 이후 주인이 귀국하며 1942년 폐업했다. 이후 일본군 장교 숙소로 사용되었다가 해방 후 부산치안사령부, 중화민국 임시 대사관으로 쓰였다. 1953년에는 신라 예식장으로 문을 열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문을 닫았고 1972년에는 이웃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2/3가 불타기도 했다.

## 그림으로 외치는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 『못다 핀 꽃』

“여기 봉오리를 터뜨리기 전 목련꽃이 꼭 내 신세 같네.  
제일 이쁠 적에 제대로 한번 피어보지도 못한 것이 나랑 닮았어.”

- 『못다 핀 꽃』 中 196p -



『못다 핀 꽃』 표지, 이경신 글

이경신 작가는 과거 나눔의 집 미술 선생으로 약 5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들과 그림수업을 이어나갔다. 『못다 핀 꽃』은 그때의 기억과 생각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이다. 일본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수모를 겪었던 할머니들은 수업 초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하얀 도화지에 연필과 붓으로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갔다. 생채기 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주고, 자신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마주했다.

강덕경 할머니의 <빼앗긴 순정>,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 핀 꽃>과 <끌려감>은 도서가 출간되기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작품의 뒷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할머니들의 속 뜻과 감정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울림도 배로 느낄 수 있다.

『못다 핀 꽃』에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 있어요!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이 평생 어떤 고통에 시달렸는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내야 했는지 기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가장 아픈 역사적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머니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관에서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못다 핀 꽃』 속 그림과 역사관에서 만날 수 있는 목소리처럼 피해자들이 남긴 간절함과 눈물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 < '위안부'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

	<p><b>꽃</b> 김금숙 만화</p> <p>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기존과 다르게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슬픔으로 점철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p>
	<p><b>꽃과 나비</b> 민경혜 글</p> <p>가슴 아픈 일을 겪은 춘희 씨와 그녀의 증손녀 희주의 시점을 번갈아가며 춘희 씨가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비가 되어 하나둘씩 풀어나간다.</p>
	<p><b>한명</b> 김숨 글</p> <p>이 책의 주인공은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히지 않고 살아온 어느 '한명'의 할머니이다. 소설 속 마지막 생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그 새로운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p>

글 | 역사관 정민경



##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곳,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우리 막둥이의 숙제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집 근처라 간혹 산책하며 거닐 때 한 번은 가야지 생각했는데 관람 후 많은 생각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역사관은 부산의 그 어떤 관광지보다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때 더욱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2년 버킷리스트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을 올려 아이와 함께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글·사진 | 블로거 seeall2004

<http://blog.naver.com/seeall2004/222710752527>







##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부산문화회관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시간이 남아 카페가 있으면 갈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새파란 간판의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표지판이 눈에 띄어 가볍게 둘러보기로 했다.

1층 올림의 방(로비)에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해주고 있었는데 강제동원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이 보기에 좋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고통은 전해졌다. 전시는 4~6층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내 움직임에 따라 센서가 작동해 음악이 시작되고, 영상이 상영되고 하는 것들이 전시에 몰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5층 기억의 터에는 까만 장식 같은 것이 빼곡하게 벽에 붙어 있는데, 가까

이가보니 장생탄광의 희생자 위패였다. 5층 전시실에는 당시 탄광의 모습도 재현되어 있었는데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패를 보면 돌아가신 날짜를 알 수 없는 분도 굉장히 많다. 당시 피해 현장 등이 잘 재현되어 있었고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들의 물건이 전시되어 있어 모두의 도움으로 함께 만든 곳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을 알았다. 사람 하나가 겨우 누울 만한 작은 침상. 이 곳에서 '위안부'들이 겪었을 고통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작고 비위생적이었고, 이 작은 공간의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위안소 재현 공간 옆 영상의 김복득 선생님은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신 채 2018년 7월 영면하셨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굉장히 무거워진 마음으로 나왔다. 어떤 이유로든 전쟁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사진 | 블로거 신난다

[https://blog.naver.com/shin\\_2335/222744721939](https://blog.naver.com/shin_2335/222744721939)



역사관 방문기 참여 안내

역사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주일

글 : 그림 김종수



1) 아버지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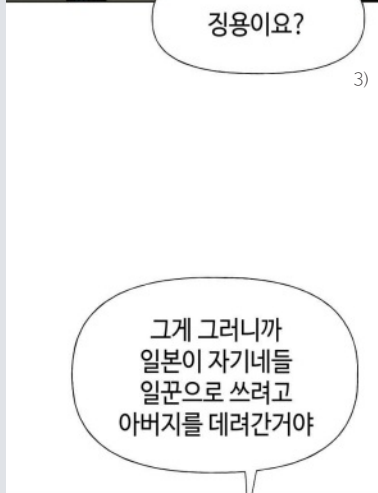


2)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못봤거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징용에 끌려갔다고 그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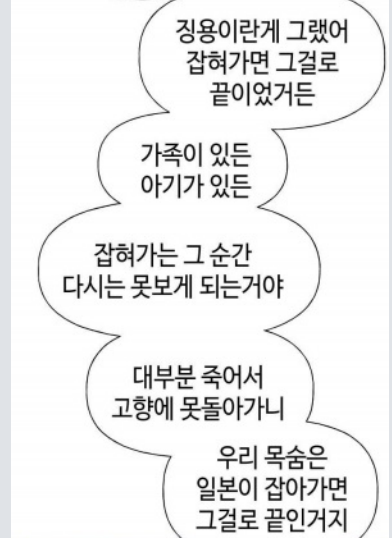
3) 징용이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들 일꾼으로 쓰려고 아버지를 데려간거야



4)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사는거지



징용이란게 그랬어 잡혀가면 그걸로 끝이었거든

가족이 있든 아기가 있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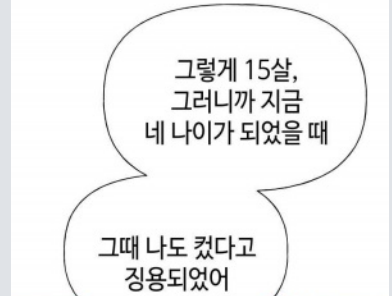
잡혀가는 그 순간 다시는 못보게 되는거야

대부분 죽어서 고향에 못돌아가니

우리 목숨은 일본이 잡아가면 그걸로 끝인거지



5) 말도 안돼요 너무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15살, 그러니까 지금 네 나이가 되었을 때

6) 그때 나도 컸다고 징용되었어



일본의  
제련소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고생했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더니

2년 뒤 작업반장으로  
날 앉혀주더라고



그러더니 보상으로  
소원을 말해보래,  
하나 들어준대서



일본에 계신다는  
아버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고 아버지 보는 것이  
소원이라 했지

그러더니 어느날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서 나에게  
보내준거야



태어나서 처음 본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있었어



네... 네가  
덕종이냐?

그렇게 일주일...  
아버지와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손잡고 다니며  
휴가를 보내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아버지는  
다시는 보지 못했어



13)

아마도 죽었겠지

징용으로 끌려오면 대부분 끝이 그랬으니



14)

그게 나의 아버지에 관한 기억의 전부란다



여기 있다

15)

오호 있네 있어



뭐가 있다는 거야?

16)

옛날에 엄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되어 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오신 분이거든...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일제 강제동원 구술자료로 정리되었길래 보는거야

17)

그런데 세상은 여전하네...



18)

할아버지가 종종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었는지...



이젠 좀 알 것 같아

19)



20)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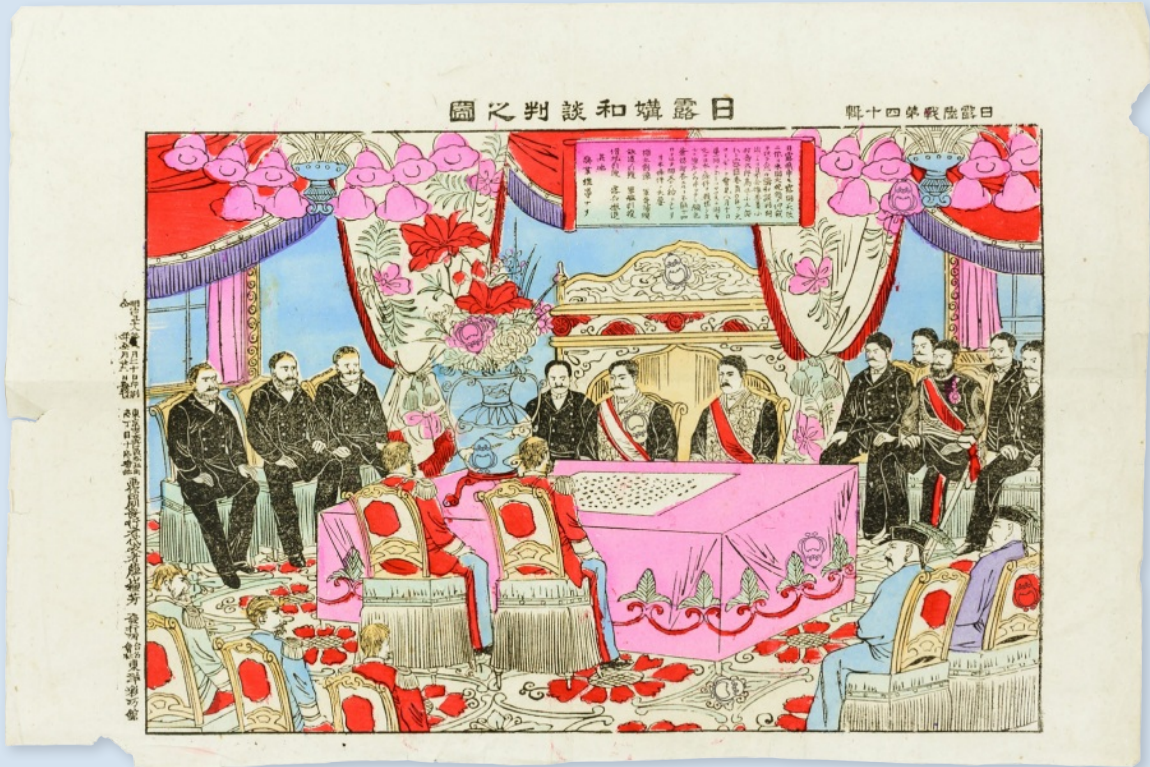
본 이야기는 일제강제동원생존자 구술집 "똑딱선 타고 바다귀신 될 뻔했죠" 중 충북 옥천군 주덕중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 F O M O 찾기

포모 캐릭터 8개를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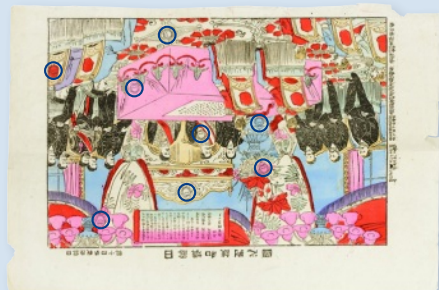
포모는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의 악자로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국에 소식이나 안부(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역사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일로강화담판지도 日露媾和談判之圖

1905[明治38]년 발행된 일로강화담판지도는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석판화물이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인정받은 계기이자 조선의 국가 운명이 전환점을 맞게 된 사건이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을사조약 체결 등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었고 남만주 조차권과 철도를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아 대륙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위 그림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유물입니다.



## 인문학 특강



제1강	8월 6일	근세 일본인들의 조선관 : 퇴계학 수용을 중심으로	성해준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교수
제2강	8월 13일	일제강점기 여성 항일운동	심민정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제3강	8월 20일	개항기 부산의 수산업 변화	서경순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4강	8월 27일	일본의 한국 침략 서막, 동학혁명군 진압	성강현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겸임교수
제5강	9월 3일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세계 인식	전성현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멀티미디어실(6층)
- **신청** : 홈페이지([www.fomo.or.kr/museum](http://www.fomo.or.kr/museum))
- **수강인원** : 선착순 50명
- **문의** : 051) 629-8630, 8600

※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 (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올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 오브제 인형극

강제동원 4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전달하는 인형극입니다.

- 장소 : 7층 어린이체험관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Na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mailto: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 기억과 기록

---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의처 : ☎ 051) 629-8615

---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 문의처 : ☎ 02) 721-1825
- ※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